미래에셋은퇴서베이

2017. 5

# 5060 은퇴서베이 Fact Book

CONTENTS


Ⅰ. 퇴직시기 및 과정

Ⅱ. 노후소득과 연금

Ⅲ. 퇴직 전후 재무상황 인식

Ⅳ. 투자행태

Ⅴ. 퇴직금 운용



MIRAE ASSET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목 차

Ⅰ. 퇴직시기 및 과정 ····· 3p

Ⅱ. 노후소득과 연금 ····· 7p

Ⅲ. 퇴직 전후 재무상황 인식 ····· 16p

Ⅳ. 투자행태 ····· 22p

Ⅴ. 퇴직(연)금 운용 ····· 26p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퇴직'은 재무적 관점에서 급여소득이 중단되고 대신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기로, 퇴직 시기를 맞이한 5060 세대는 닥쳐올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하고 활용할 지, 향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등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

— 본 조사는 근로자가 퇴직 전후 겪게 되는 재무적 변화와 의사결정 이슈를 '퇴직과정·노후소득·재무상황 인식·투자행태·퇴직금 운용' 분야로 분석하기 위해 실행됨.

— 이에 본고에서는 5060세대를 ① 생애 주 직업에서 근로 중인 '재직자'와 ② 생애 주 직업에서 이미 은퇴한 '퇴직자'로 나누고, 재무적 관점에서 재직자의 은퇴준비 현황과 퇴직자의 은퇴생활 실태를 조사하였음.

※ 생애 주 직업 : 경제활동기간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주된 일 혹은 오랫동안 근무한 직종

## 조사 대상

— 연령 및 성별 :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재직자 및 퇴직자

— 거주지역 :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 재직자 : 조사일 현재 주된 직장(10인 이상)에 근무하고 있는 자

※ 퇴직자 : 45세 이후까지 주된 직장(10인 이상)에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퇴직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일을 지속하고 있으되 과거보다 현격히 낮은 근로조건이나 임금수준에서 근무하는 자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 기간 : 2016년 11월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및 인터넷조사

## 표본의 크기 및 구성

— 퇴직자 1,044명 (남 853명/여 191명)

— 재직자 967명 (남 832명/여 135명)

## 표본 추출

— 지역/성/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법

# Ⅰ. 퇴직 시기 및 과정

## 1. 퇴직 시기

**5060 퇴직자의 61.1%는 60세 이후 퇴직을 희망했지만,**
**현실은 82.1%가 59세 이전에 퇴직**

— 퇴직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4.0세로, 재직할 당시의 희망 퇴직연령인 59.4세보다 평균 5.3년 빠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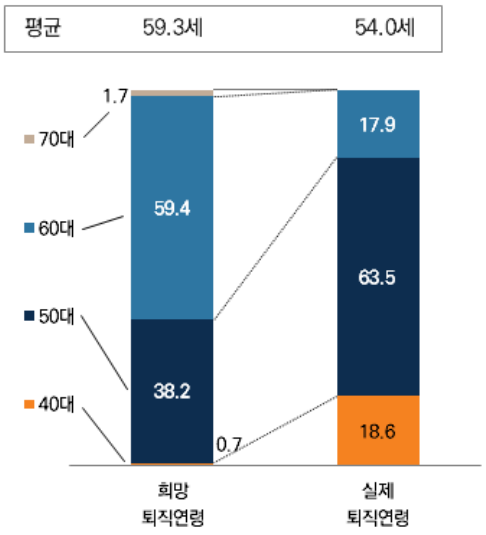
- 퇴직자 중 60세 이후 퇴직 비율은 17.9%에 불과하며, 63.5%가 50대에 퇴직함.

— 재직자의 93.6%는 60세 이후 퇴직을 희망함.

- 재직자의 체감 퇴직연령(선후배 및 동료의 퇴직연령)은 59.8세로, 희망 퇴직연령인 63.8세보다 평균 4.0년 빠름
- 재직자는 본인의 선후배 및 동료 중 62.3%가 60세 이후 퇴직한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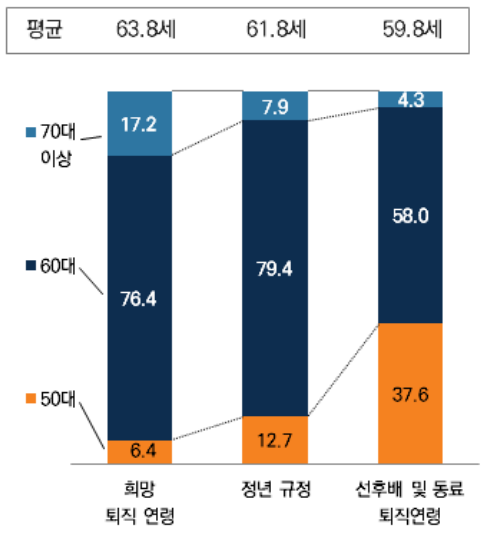
**[ 퇴직자의 퇴직시기 분포 ]**

(단위: %)




**[ 재직자의 예상 퇴직시기 분포 ]**

(단위: %)




※ 참고: 재직자의 선후배 및 동료 퇴직연령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선후배 및 동료의 퇴직연령을 질문한 것임.
선후배 및 동료의 퇴직연령이 '60세'라고 답한 사람이 954명 중 322명으로, 전체의 33.8%임.

※ 퇴직자=1,044명, 재직자=967명

## 2. 더 일하고 싶은 이유

**“‘노후준비 부족 〉 생활비 부족 〉 자녀 결혼자금 마련’ 때문에 퇴직을 미루고 싶었다”**

— 퇴직자는 주로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으로 더 일하고자 했으며, 자녀 결혼자금 및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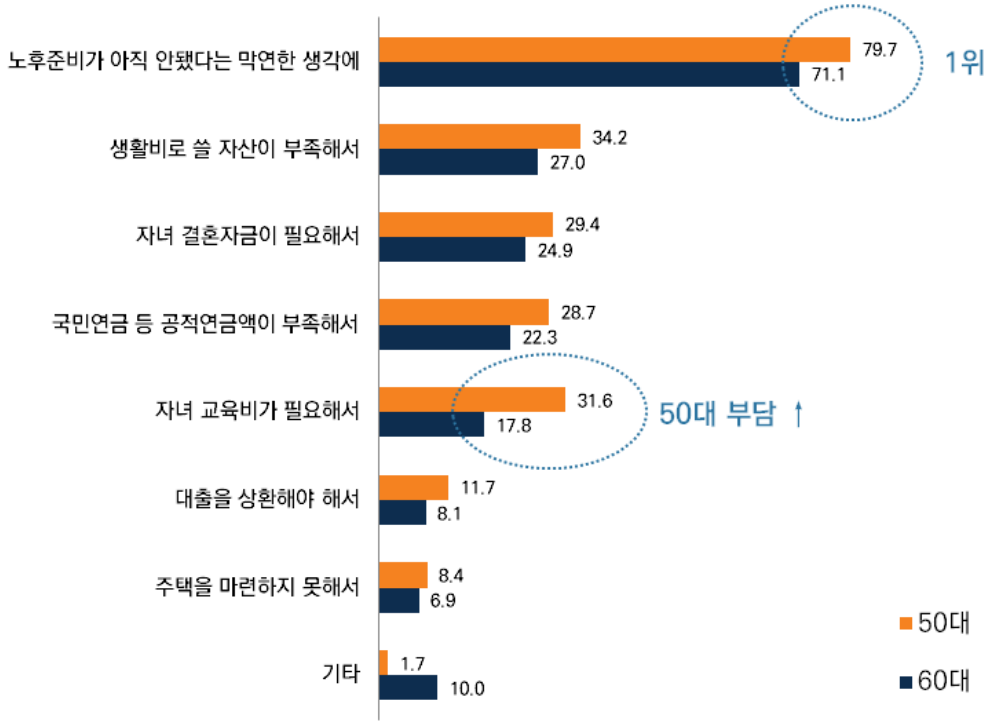
- 60대 퇴직자 중 79.7%, 50대 퇴직자 중 71.1%가 재직시절 ‘노후준비가 아직 안됐다는 막연한 생각에’ 퇴직을 미루고 싶었다고 응답함.

— 50대 퇴직자가 60대 퇴직자보다 자녀 관련 비용에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50대 퇴직자 중 31.6%가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꼈으나 60대 퇴직자는 17.8%만이 자녀 교육비 부담을 느낌.

**[ 퇴직을 미루고 싶었던 이유 ]**

(단위: %, 복수응답)




※ 희망 은퇴시기보다 일찍 퇴직한 퇴직자=840명

## 3. 퇴직 사유

**퇴직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비중은 19.3%에 불과**

— 퇴직자의 퇴직 사유는 '비자발적 퇴직(회사사유) 〉 정년퇴직 〉 자발적 퇴직'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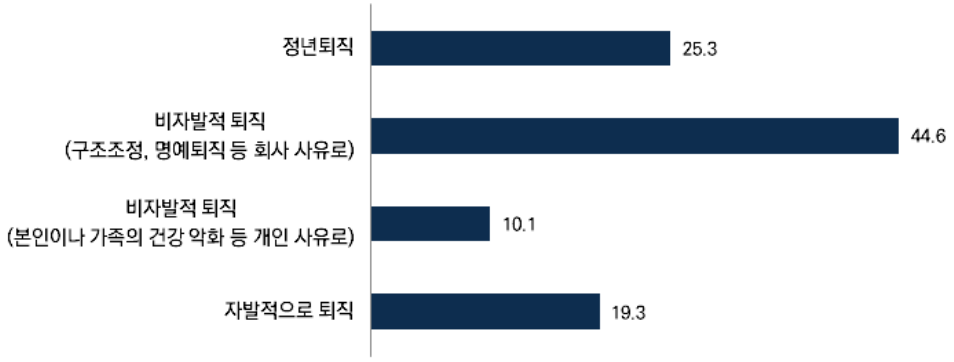
- 퇴직 사유: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등 회사 사유 비자발적 퇴직' 44.6% 〉 '정년퇴직' 25.3% 〉 '건강악화 등 개인 사유로 비자발적 퇴직' 10.1%

— 퇴직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회사 사유로 비자발적 퇴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회사 사유 비자발적 퇴직': 50대 58.3% 〈 60대 33.7%

**[ 퇴직 사유 ]**

(단위: %, 복수응답)




**[ 퇴직 사유 ]**

| | 퇴직자 전체 (1,044명) | 연령대별 | | 경제활동여부별 | |
|---|---|---|---|---|---|
| | | 50대 (463) | 60대 (581) | 비경제활동 (533) | 경제활동 (511) |
| 정년퇴직 | 25.3 | 7.6 | 39.4 | 29.8 | 20.5 |
| 회사사유로 비자발적 퇴직 | 44.6 | 58.3 | 33.7 | 37.5 | 52.1 |
| 개인사유로 비자발적 퇴직 | 10.1 | 12.3 | 8.3 | 12 | 8 |
| 자발적으로 퇴직 | 19.3 | 20.7 | 18.2 | 20.1 | 18.6 |
| 기타 | .7 | 1.1 | 0.3 | 0.6 | 0.8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1,044명

# II. 노후 소득과 연금

## 1. 은퇴 후 필요한 자산(총액)

**수도권 퇴직자가 지방광역시 퇴직자보다 “퇴직자산 9천만원 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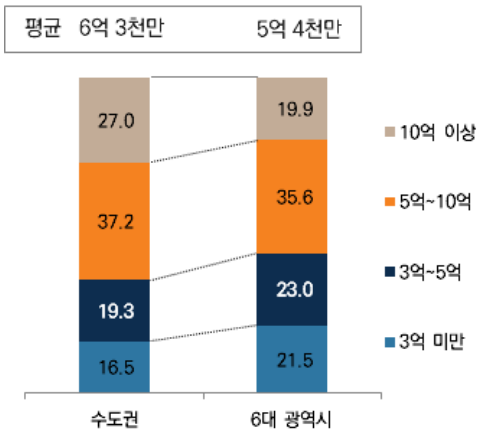
—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자산이 얼마나 필요할 지 물었을 때 수도권(서울·경기) 퇴직자는 6억 3천만 원, 지방광역시(6대 광역시) 퇴직자는 5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퇴직자는 은퇴 이후 평균 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직자는 약 6억 7천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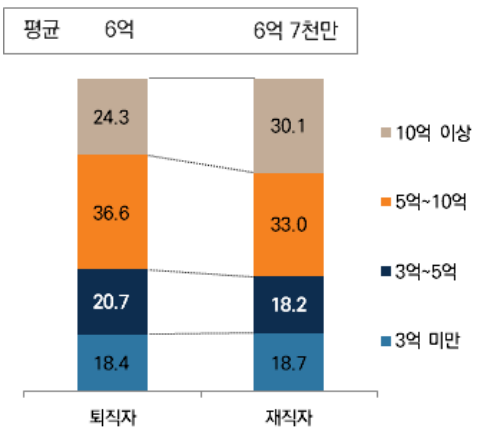
**[ 은퇴 후 필요한 자산 ]**

(단위: 원, %)

〈 지역별 퇴직자 〉




〈 재직자와 퇴직자 〉




※ 참고: 수도권은 서울/경기, 6대 광역시는 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지역임.

**[ 은퇴 후 필요한 자산(퇴직자) ]**

(단위: %)

| | 서울 (310명) | 경기 (338) | 인천 (80) | 대전 (41) | 광주 (40) | 대구 (84) | 부산 (110) | 울산 (41) |
|---|---|---|---|---|---|---|---|---|
| 평균(만 원) | 6억 5천 | 6억 2천 | 5억 2천 | 5억 6천 | 5억 1천 | 5억 6천 | 5억 4천 | 6억 0천 |
| 3억 미만 | 17.1 | 16.0 | 28.8 | 14.6 | 27.5 | 19.0 | 20.0 | 17.1 |
| 3억~5억 | 16.8 | 21.6 | 18.8 | 31.7 | 25.0 | 20.2 | 23.6 | 24.4 |
| 5억~10억 | 37.4 | 37.0 | 27.5 | 34.1 | 32.5 | 42.9 | 39.1 | 31.7 |
| 10억 이상 | 28.7 | 25.4 | 25.0 | 19.5 | 15.0 | 17.9 | 17.3 | 26.8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1,044명, 재직자=967명

## 2.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월)

**퇴직자가 필요로 하는 부부 생활비는 '월 28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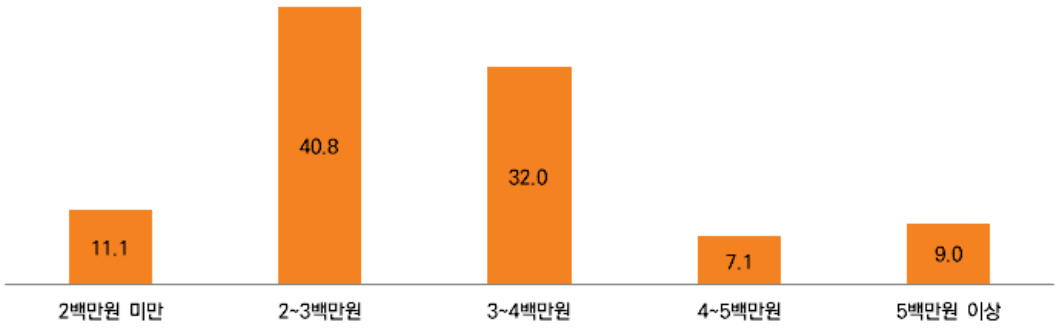
— 퇴직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비가 얼마인지 물었을 때 '월 2~3백만 원'(40.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후 '3~4백만 원'(32.0%) 〉 '2백만 원 미만'(11.1%) 순임.

— 퇴직자를 연령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60대·남성이 더 많은 생활비를 필요로 함.

- 연령별: 50대 273만 원 〈 60대 287만 원으로 60대가 14만원 많음.
- 성별: 남성 286만 원 〉 여성 262만 원으로 남성이 26만원 많음.

**[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 분포 ]**

(단위: %)




**[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월) ]**

(단위: %)

| | 퇴직자 전체 (1,044명) | 연령대별 | | 성별 | |
|---|---|---|---|---|---|
| | | 50대 (463) | 60대 (581) | 남성 (853) | 여성 (191) |
| 평균(원) | 281만 | 274만 | 287만 | 286만 | 262만 |
| 200만원 미만 | 11.1 | 11.4 | 10.8 | 9.4 | 18.8 |
| 200만원~300만원 | 40.8 | 43.0 | 39.1 | 40.3 | 42.9 |
| 300만원~400만원 | 32.0 | 31.7 | 32.2 | 32.7 | 28.8 |
| 400만원~500만원 | 7.1 | 5.8 | 8.1 | 8.3 | 1.6 |
| 500만원 이상 | 9.0 | 8.0 | 9.8 | 9.3 | 7.9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1,044명

### 3. 공적연금 수령(예상)액

**퇴직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은 본인 102만 원, 배우자 45만 원**

— 퇴직자 중 60대 남성의 공적연금 수령액(수령하기 전이라면 수령 예상액, 이하 동일)이 가장 높고, 60대 여성이 가장 낮음.

• 60대 남 116만 원 〉 50대 남 101만 원 〉 50대 여 72만 원 〉 60대 여 66만 원

— 배우자의 공적연금 수령액을 물었을 때, 여성은 배우자의 공적연금을 80~93만 원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배우자의 공적 연금을 30~45만 원이라고 응답함.

**[ 퇴직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단위: %)

| | 퇴직자 전체 (1,044명) | 남성 | | 여성 | |
|---|---|---|---|---|---|
| | | 50대 (375) | 60대 (478) | 50대 (88) | 60대 (103) |
| 평균(원) | 102만 | 101만 | 116만 | 72만 | 65만 |
| 없음 | 20.9 | 18.9 | 17.6 | 26.1 | 38.8 |
| 100만원 미만 | 35.0 | 34.1 | 33.5 | 45.5 | 35.9 |
| 100만원~200만원 | 28.0 | 34.4 | 28.5 | 14.8 | 13.6 |
| 200만원 이상 | 16.2 | 12.5 | 20.5 | 13.6 | 11.7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단위: %)

| | 유배우 퇴직자 (936명) | 남성 | | 여성 | |
|---|---|---|---|---|---|
| | | 50대 (332) | 60대 (452) | 50대 (70) | 60대 (82) |
| 평균(원) | 45만 | 45만 | 30만 | 93만 | 80만 |
| 모름 | 16.0 | 18.7 | 13.1 | 21.4 | 17.1 |
| 없음 | 45.4 | 44.9 | 54.9 | 17.1 | 19.5 |
| 100만원 미만 | 24.4 | 22.3 | 23.2 | 28.6 | 35.4 |
| 100~200만원 | 8.2 | 8.1 | 4.9 | 20.0 | 17.1 |
| 200만원 이상 | 6.0 | 6.0 | 4.0 | 12.9 | 11.0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1,044명, 유배우 퇴직자=936명

## 재직자가 예상하는 공적연금은 본인 130만 원, 배우자 52만 원

— 재직자 중 50대 남성의 공적연금 수령 예상액이 가장 높고, 60대 여성이 가장 낮음.

• 50대 남 134만 원 〉 60대 남 132만 원 〉 50대 여 111만 원 〉 60대 여 70만 원

— 배우자의 공적연금 수령 예상액을 물었을 때, 여성은 배우자의 공적연금을 105~110만 원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39~44만 원에 그침.

• 50대 여 110만 원 〉 60대 여 105만 원 〉 50대 남 44만 원 〉 60대 남 39만 원

**[ 재직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예상액 ]**

(단위: %)

| | 퇴직자 전체 (967명) | 남성 | | 여성 | |
|---|---|---|---|---|---|
| | | 50대 (685) | 60대 (147) | 50대 (113) | 60대 (22) |
| 평균(원) | 130만 | 135만 | 132만 | 111만 | 70만 |
| 없음 | 7.3 | 5.1 | 12.9 | 11.5 | 18.2 |
| 100만원 미만 | 28.3 | 25.8 | 29.3 | 38.9 | 45.5 |
| 100만원~200만원 | 44.1 | 48.9 | 38.1 | 25.7 | 27.3 |
| 200만원 이상 | 20.3 | 20.1 | 19.7 | 23.9 | 9.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재직자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예상액 ]**

(단위: %)

| | 유배우 퇴직자 (909명) | 남성 | | 여성 | |
|---|---|---|---|---|---|
| | | 50대 (650) | 60대 (140) | 50대 (105) | 60대 (14) |
| 평균(원) | 52만 | 44만 | 39만 | 24만 | 29만 |
| 모름 | 20.5 | 20.8 | 15.7 | 23.8 | 28.6 |
| 없음 | 29.5 | 29.8 | 41.4 | 12.4 | 21.4 |
| 100만원 미만 | 35.4 | 38.2 | 34.3 | 22.9 | 14.3 |
| 100~200만원 | 9.4 | 7.5 | 3.6 | 26.7 | 21.4 |
| 200만원 이상 | 5.3 | 3.7 | 5.0 | 14.3 | 14.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재직자=967명, 유배우 재직자=909명

## 4. 사적연금 수령액

**퇴직자가 수령하는 사적연금은 본인 58만 원, 배우자 25만 원**

— 퇴직자 중 60대 남성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고, 60대 여성이 가장 낮음.

• 60대 남 76만 원 〉 50대 남 43만 원 〉 60대 여 50만 원 〉 50대 여 33만 원

— 60대 여성 퇴직자의 배우자가 가장 많은 사적연금을 수령하고, 반대로 60대 남성의 배우자가 가장 적은 사적연금을 수령함.

• 60대 여 53만 원 〉 50대 여 42만 원 〉 50대 남 23만 원 〉 60대 남 19만 원

**[ 퇴직자의 사적연금 수령액 ]**

(단위: %)

| | 퇴직자 전체 (1,044명) | 남성 | | 여성 | |
|---|---|---|---|---|---|
| | | 50대 (375) | 60대 (478) | 50대 (88) | 60대 (103) |
| 평균(원) | 58만 | 43만 | 76만 | 33만 | 50만 |
| 없음 | 51.8 | 55.2 | 47.1 | 60.2 | 54.4 |
| 100만원 미만 | 25.6 | 26.1 | 24.7 | 26.1 | 27.2 |
| 100만원~200만원 | 11.7 | 13.3 | 11.5 | 10.2 | 7.8 |
| 200만원 이상 | 10.9 | 5.3 | 16.7 | 3.4 | 10.7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단위: %)

| | 유배우 퇴직자 (936명) | 남성 | | 여성 | |
|---|---|---|---|---|---|
| | | 50대 (332) | 60대 (452) | 50대 (70) | 60대 (82) |
| 평균(원) | 25만 | 23만 | 19만 | 42만 | 53만 |
| 모름 | 17.5 | 20.5 | 13.7 | 25.7 | 19.5 |
| 없음 | 57.6 | 55.7 | 65.7 | 38.6 | 36.6 |
| 100만원 미만 | 17.8 | 18.1 | 14.6 | 24.3 | 29.3 |
| 100~200만원 | 3.7 | 3.0 | 3.1 | 7.1 | 7.3 |
| 200만원 이상 | 3.3 | 2.7 | 2.9 | 4.3 | 7.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1,044명, 유배우 퇴직자=936명

## 재직자가 예상하는 기타연금은 본인 75만 원, 배우자 30만 원

— 재직자 중 60대 남성의 사적연금 수령 예상액이 가장 높고, 60대 여성이 가장 낮음.

• 60대 남성 77만 원 〉 50대 남성 77만 원 〉 50대 여성 53만 원 〉 60대 여성 49만 원

— 배우자의 사적연금 수령 예상액은 60대 여성의 배우자가 가장 높고, 60대 남성의 배우자가 가장 낮음.

• (응답자 본인 기준) 60대 여성 77만 원 〉 50대 여성 46만 원 〉 50대 남성 44만 원 〉 60대 남성 39만 원

**[ 재직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예상액 ]**

(단위: %)

| | 퇴직자 전체 (967명) | 남성 | | 여성 | |
|---|---|---|---|---|---|
| | | 50대 (685) | 60대 (147) | 50대 (113) | 60대 (22) |
| 평균(원) | 75만 | 77만 | 87만 | 53만 | 49만 |
| 없음 | 26.4 | 22.9 | 34.0 | 34.5 | 40.9 |
| 100만원 미만 | 42.4 | 45.1 | 28.6 | 45.1 | 36.4 |
| 100만원~200만원 | 19.3 | 20.4 | 20.4 | 12.4 | 13.6 |
| 200만원 이상 | 11.9 | 11.5 | 17.0 | 8.0 | 9.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재직자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예상액 ]**

(단위: %)

| | 유배우 퇴직자 (909명) | 남성 | | 여성 | |
|---|---|---|---|---|---|
| | | 50대 (650) | 60대 (140) | 50대 (105) | 60대 (14) |
| 평균(원) | 30만 | 28만 | 23만 | 46만 | 77만 |
| 모름 | 24.5 | 25.1 | 20.0 | 27.6 | 21.4 |
| 없음 | 43.1 | 42.6 | 57.9 | 28.6 | 28.6 |
| 100만원 미만 | 24.9 | 26.0 | 15.7 | 29.5 | 28.6 |
| 100~200만원 | 4.5 | 4.0 | 2.9 | 9.5 | 7.1 |
| 200만원 이상 | 3.0 | 2.3 | 3.6 | 4.8 | 14.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재직자=967명, 유배우 재직자=909명

## 5. 생활비 마련 방법(연금 제외)

**부족한 생활비는 모아둔 금융자산에서 인출(39.0%)**

— 연금 외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퇴직자 중 39.0%, 재직자 중 45.7%가 '모아둔 금융자산에서 인출(재직자의 경우 예상, 이하 동일)'한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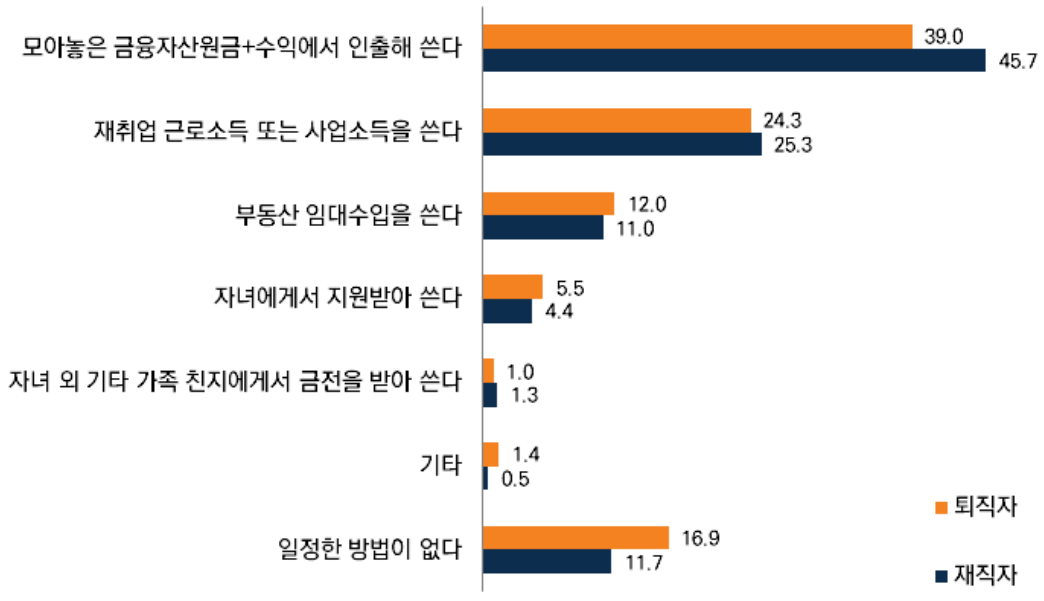
— 그 외 소득 마련 방법으로는 '재취업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퇴직자 24.3%, 재직자 25.3%) '부동산 임대수입'(퇴직자 12.0%, 재직자 11.0%) 등이 있음.

— '일정한 방법이 없다'는 응답도 퇴직자 16.9%, 재직자 11.7%에 달함.

— 생활비를 '자녀에게서 지원받는다'는 비율은 퇴직자 5.5%, 재직자 4.4%에 그침.

[ 연금 외 고정적인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1순위) ]

(단위: %)




※ 퇴직자=1,044명, 재직자=967명

## 6. 종신연금 가입 목적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종신연금 가입**

—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주목적은 '오래 살아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61.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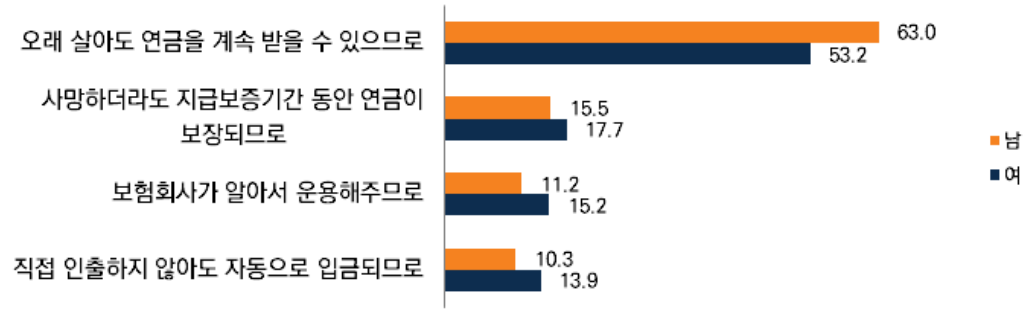
- 여성(53.2%)보다 남성(63.0%)에서 '오래 살아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신연금에 가입하겠다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남.

— 남성 퇴직자보다 여성 퇴직자가 종신연금이 자동으로 운용·인출되는 점을 선호함.

- '보험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므로' : 여성 15.2% 〉 남성 11.2%
- '직접 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되므로' : 여성 13.9% 〉 남성 10.3%

**[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목적 ]**

(단위: %)




※ 퇴직자=1,044명

**[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목적 ]**

(단위: %)

| | 연금가입 의향있음 (409) | 남성 | | 여성 | |
|---|---|---|---|---|---|
| | | 50대 (175) | 60대 (155) | 50대 (46) | 60대 (33) |
| 오래 살아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 61.1 | 62.3 | 63.9 | 52.2 | 54.5 |
| 사망하더라도 지급보증기간 동안 연금이 보장되므로 | 15.9 | 15.4 | 15.5 | 19.6 | 15.2 |
| 보험회사가 알아서 운용해주므로 | 12.0 | 13.1 | 9.0 | 15.2 | 15.2 |
| 직접 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금되므로 | 11.0 | 9.1 | 11.6 | 13.0 | 15.2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 1,044명 중 연금가입 의향이 있는 409명

# Ⅲ. 퇴직 전후 재무상황 인식

## 1. 퇴직 전후 월평균 소득 변화

**퇴직자 2명 중 1명, 퇴직 전보다 소득 절반 이상 감소**

— 퇴직자 중 81.5%는 퇴직 이전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줄었으며, 13.5%는 변화가 없었고, 5.0%는 소득이 늘어남.

※ 여기서 소득이란 연금, 금융자산 인출액, 이전금액 등을 모두 포괄한 총 소득을 의미함.

- 소득이 줄어든 퇴직자 중 64.4%(전체 퇴직자 중 52.5%)는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늘어난 퇴직자 중 76.9%는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은퇴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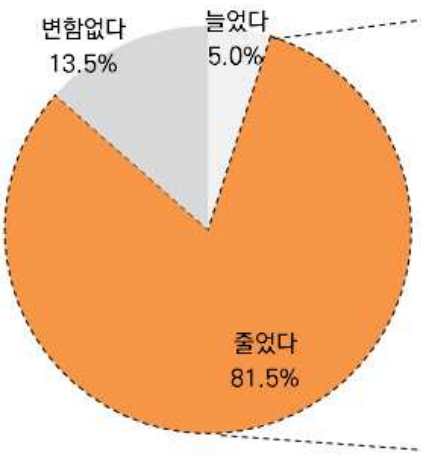
— 퇴직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퇴직자들에게 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물었을 때, 퇴직 전에 비해 평균 52.5% 감소했다고 응답함.

- 소득이 '50~75% 감소'한 퇴직자가 50.9%로 가장 많았고, 이후 '25~50% 감소'(26.7%) 〉 '75% 이상 감소'(13.5%) 〉 '0~25% 감소'(8.9%) 순임.

**[ 퇴직 이후 소득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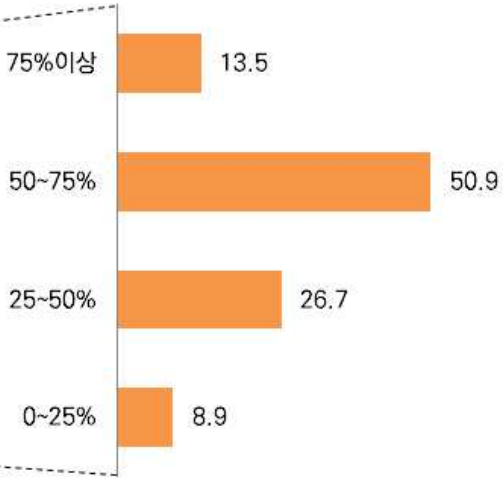
(단위: %)

〈 퇴직 이후 소득 변화 여부 〉




※ 퇴직자=1,044명

〈 퇴직 이전 대비 소득 감소율 〉




※ 퇴직 이후 소득이 감소한 851명

## 2. 퇴직 전후 경제적 계층 변화

**퇴직자 43.8%, “나는 빈곤층이다”**

— 퇴직자에게 본인의 경제 계층을 물었을 때 퇴직 전에는 본인이 ‘중산층’이었다는 답변이 83.3%를 차지했으나 퇴직 후에는 55.7%로 감소함.

— ‘빈곤층’이라는 답변은 퇴직 전 13.4%에서 퇴직 후 43.8%로 증가함.

— 본인이 중산층이라 답한 퇴직자의 월소득은 평균 411만 원이며, 빈곤층이라 답한 퇴직자의 월소득은 평균 249만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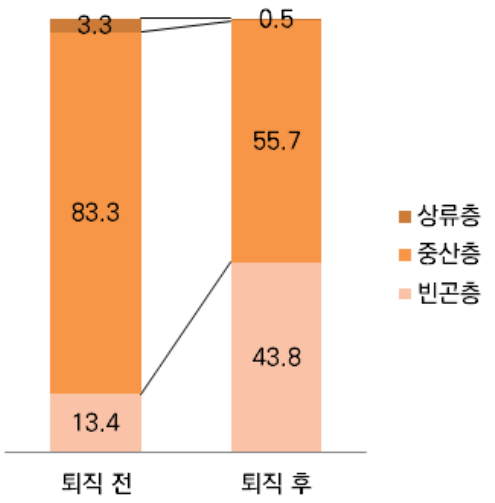
• 상류층이라 답한 퇴직자의 월소득은 평균 550만원임.

— 본인이 중산층이라 답한 퇴직자의 평균 자산은 약 8억 원이며, 본인을 빈곤층이라 답한 퇴직자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6천만원임.

**[ 퇴직 전후 경제적 계층 변화 ]**

(단위: %)

〈 경제적 계층 〉




〈 계층별 소득 및 자산 〉

| 경제적 계층 | 월소득 (만원) | 자산 (만원) | 수 (명) |
|---|---|---|---|
| 상류층 | 550 | 270,000 | 5 |
| 중산층 | 411 | 80,474 | 582 |
| 빈곤층 | 249 | 36,648 | 457 |

※ 퇴직자=1,044명

## 3. 퇴직 후 소득 만족도

**퇴직자 93.8%, “생활비 여유 없어”**

— 퇴직자의 대부분(93.8%)는 생활비가 여유롭지 않다고 느끼며, ‘여유롭다’는 5.7%, ‘매우 여유롭다’는 0.5%에 그침.

• 생활비가 ‘모자라다’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보통이다’ 35.2% 〉 ‘매우 모자라다’ 16.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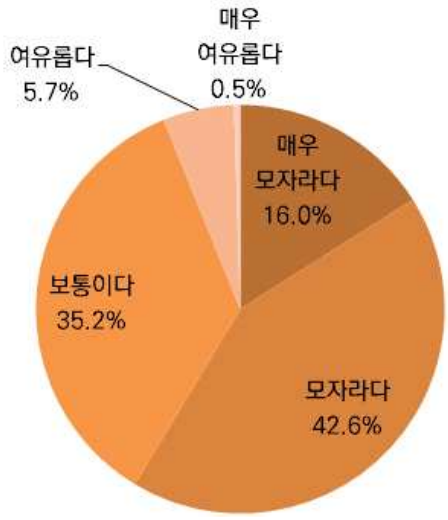
— 생활비가 ‘매우 모자라다’고 답한 이들의 평균 생활비는 219만 원이었으며, ‘모자라다’ 314만 원 〈 ‘보통이다’ 385만 원 순임.

• 생활비가 ‘여유롭다’고 답한 퇴직자의 평균 생활비는 560만 원, ‘매우 여유롭다’고 답한 퇴직자의 평균 생활비는 820만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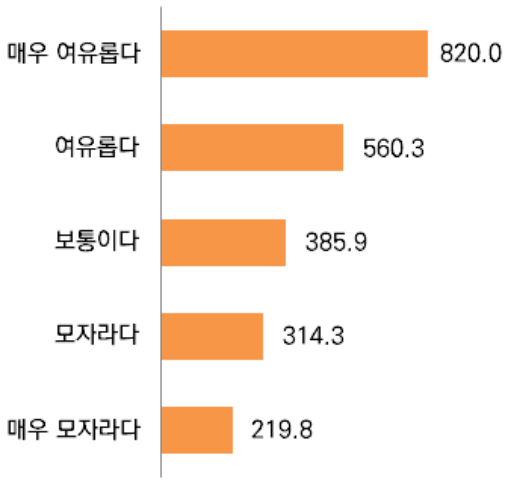
**[ 퇴직 후 소득 만족도 ]**

(단위: %)

〈 현재 생활비 만족도 〉




〈 생활비 만족도별 평균 금액(만원) 〉




※ 퇴직자=1,044명

## 4. 퇴직 후 시급한 재무 문제

**노후에 제일 필요한 것은 생활비(48.1%), 그리고 자녀의 결혼자금(16.6%)**

— 퇴직자 절반(48.1%)은 가장 시급한 재무 문제로 '정기적 생활비 마련'을 꼽았으며, 이후 중요한 문제는 '자녀 결혼자금 마련' 16.6%, '대출잔액 상환' 12.1% 순임.

— 시급한 재무 목표 3가지를 물었을 때 50대 퇴직자는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54.6%)과 '교육비 마련'(27.6%)에 대해 60대보다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60대 퇴직자는 32.7%가 '자녀 결혼자금 마련'에, 6.4%가 '자녀 교육비 마련'에 부담을 느낌

**[ 가장 시급한 재무 목표 (1순위) ]**

(단위: %)

**[ 가장 시급한 재무 목표(1+2+3순위) ]**

(단위: %)

| | 전체 (1,044) | 50대 (463) | 60대 (581) | 남성 (853) | 여성 (191) |
|---|---|---|---|---|---|
| 정기적인 생활비 마련 | 65.4 | 70.0 | 61.8 | 66.0 | 62.8 |
|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 | 42.4 | 54.6 | 32.7 | 44.5 | 33.0 |
| 대출잔액 상환 | 28.1 | 32.0 | 25.0 | 28.3 | 27.2 |
| 자녀 교육비 마련 | 15.8 | 27.6 | 6.4 | 16.2 | 14.1 |
| 주택 마련 | 14.8 | 19.7 | 11.0 | 13.7 | 19.9 |
| 보험료 납부 | 9.7 | 9.9 | 9.5 | 9.7 | 9.4 |
| 기타 | 2.0 | 0.9 | 2.9 | 2.0 | 2.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1,044명

## 5. 은퇴준비에서 후회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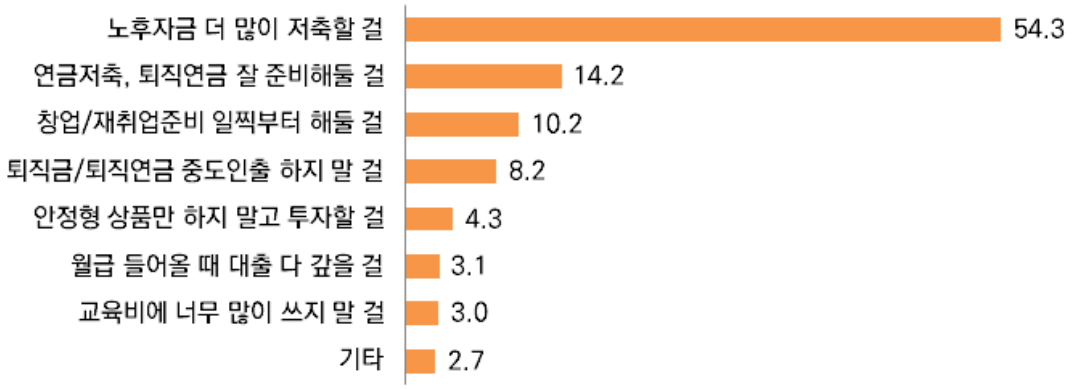
**퇴직자의 가장 큰 후회 “노후자금 더 저축할 걸”**

— 퇴직자는 ‘노후자금을 충분히 저축하지 못한 것’(54.3%)을 가장 후회했으며, 이후 ‘연금저축/퇴직연금 준비 부족’(14.2%) 〉 ‘창업/재취업 준비 부족’(10.2%) 〉 ‘퇴직금/퇴직연금 중도인출’(8.2%) 순임.

— 후회되는 것을 3가지 꼽았을 때 50대 남성 중 34.4%는 ‘창업/재취업준비 일찍부터 해둘 걸’ 후회했으며, 50대 여성 중 19.3%는 ‘교육비에 너무 쓰지 말 걸’ 후회함.

**[ 은퇴준비에서 후회되는 것 (1순위) ]**

(단위: %)




**[ 은퇴준비에서 후회되는 것 (1+2+3순위) ]**

| | 전체 (409) | 남성 | | 여성 | |
|---|---|---|---|---|---|
| | | 50대 (175) | 60대 (155) | 50대 (46) | 60대 (33) |
| 노후자금 더 많이 저축할 걸 | 71.1 | 74.1 | 71.1 | 67.0 | 63.1 |
| 연금저축, 퇴직연금 잘 준비해둘 걸 | 45.5 | 43.2 | 47.3 | 43.2 | 47.6 |
| 창업/재취업준비 일찍부터 해둘 걸 | 27.3 | 34.4 | 23.4 | 22.7 | 23.3 |
| 퇴직금/퇴직연금 중도인출 하지 말 걸 | 19.4 | 20.0 | 19.0 | 20.5 | 18.4 |
| 안정형 상품만 하지 말고 투자 할 걸 | 14.2 | 16.0 | 13.2 | 18.2 | 8.7 |
| 월급 들어올 때 대출 다 갚을 걸 | 9.9 | 12.0 | 7.5 | 15.9 | 7.8 |
| 교육비에 너무 많이 쓰지 말 걸 | 7.8 | 9.9 | 4.4 | 19.3 | 5.8 |
| 기타 | 2.7 | 1.3 | 4.0 | 1.1 | 2.9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1,044명

# Ⅳ. 투자행태

## 1. 금융자산 운용

**5060은 금융자산의 절반 가량을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보유**

— 퇴직자는 금융자산의 48.7%를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보유함.

• 금융자산 중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40% 이상인 비율은 47.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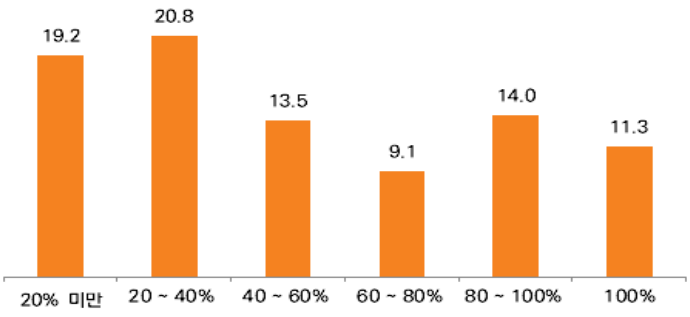
— 재직자는 금융자산의 50.0%를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보유함.

• 금융자산 중 원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40% 이상인 비율은 56.6%임.

**[ 금융자산 중 원금보장형 상품 보유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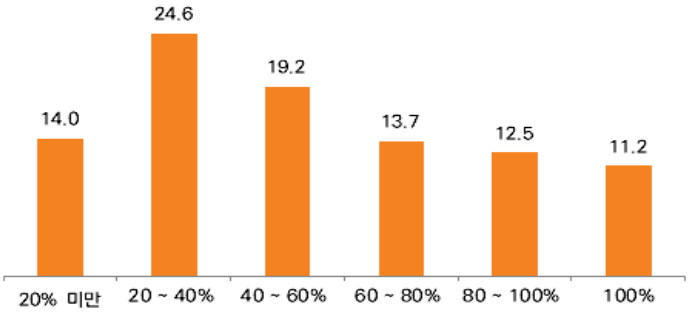
(단위: %)

**〈퇴직자〉**




**평균 : 48.7%**

**〈재직자〉**




**평균 : 50.0%**

※ 퇴직자=1044명, 재직자=967명

## 2. 금융자산 수익률 만족도

**원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에 불만족하는 5060**

— 5060은 대체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불만족함.

• 원금보장형 상품 수익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4점(퇴직자), 2.5점(재직자) 으로 보통 이하임.

— 원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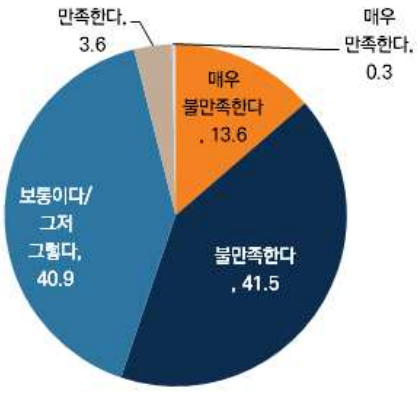
• 퇴직자의 3.9%, 재직자의 6.9%만이 원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 보유한 원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퇴직자〉

만족도 평균: 2.4점 /5점




〈재직자〉

만족도 평균 : 2.5점 /5점

※ 원금보장형 상품을 보유한 퇴직자=917명, 재직자 920명

### 3. 실적형 상품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

**실적형 상품 투자의 장애요인은 투자 자금 부족과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

— 실적형 상품에 투자하지 않거나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투자할 자금이 없거나(42.2%), 원금손실을 원하지 않기(36.0%) 때문임.

— 퇴직자의 44.9%, 재직자의 39.7%는 투자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실적형 상품에 투자하지 않거나 투자를 늘리지 않음.

**[ 실적형 상품에 투자하지 않거나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 ]**

(단위: %)

**[ 실적형 상품에 투자하지 않거나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 ]**

(단위: 명, %)

| | 전체 (2,011명) | 퇴직 여부 | | 연령 | |
|---|---|---|---|---|---|
| | | 퇴직자 (1,044) | 재직자 (967) | 50대 (1,261) | 60대 (750) |
|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 42.4 | 44.9 | 39.7 | 43.5 | 40.7 |
| 원금손실을 원하지 않아서 | 36.0 | 35.7 | 36.2 | 35.8 | 36.1 |
| 이미 투자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 8.8 | 8.0 | 9.6 | 8.3 | 9.6 |
| 지금까지 예적금으로만 운용해왔기 때문에 | 5.8 | 5.6 | 6.1 | 5.2 | 6.9 |
| 부동산처럼 금융자산 이외에 다른 운용처를 더 선호하기에 | 5.3 | 4.2 | 6.5 | 5.6 | 4.9 |
| 투자는 운이기 때문에 | 1.5 | 1.3 | 1.7 | 1.4 | 1.6 |
| 기타 | 0.2 | 0.2 | 0.2 | 0.2 | 0.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자=1,044명, 재직자=967명

# Ⅴ. 퇴직(연)금 운용

## 1. 퇴직(연)금 수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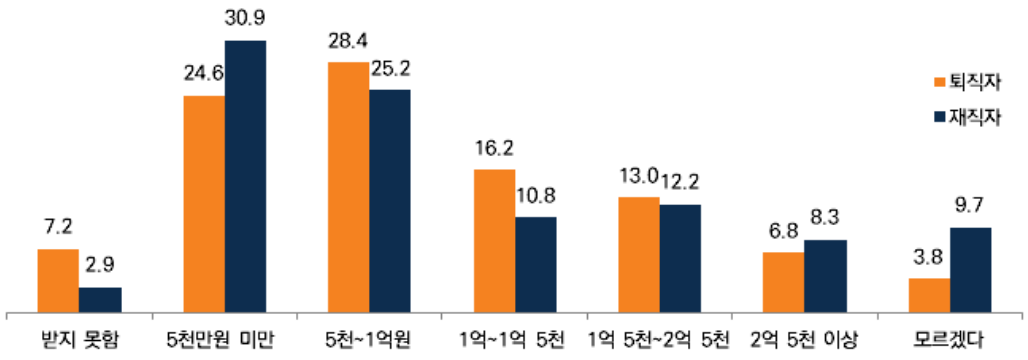
**5060의 60%는 1억 원 미만의 퇴직(연)금 수령**

— 퇴직자의 60%가 1억 원 미만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를 받았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높음.

— 재직자의 59%가 1억 원 미만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며, 5천만원 이하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0.9%임.

**[ 퇴직(연)금 수령액 분포 ]**

(단위: %)




※ 퇴직자=1,044명, 재직자=967명

**[ 퇴직(연)금 수령액 ]**

(단위: 명, %)

| | 전체 (2,011명) | 퇴직여부 | | 연령대 | |
|---|---|---|---|---|---|
| | | 퇴직자 (1,044) | 재직자 (967) | 50대 (1,261) | 60대 (750) |
| 받지 못함 | 5.1 | 7.2 | 2.9 | 4.8 | 5.7 |
| 5천만원 미만 | 27.6 | 24.6 | 30.9 | 29.0 | 25.3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26.9 | 28.4 | 25.2 | 27.0 | 26.5 |
| 1억원 이상~1억 5천 미만 | 13.6 | 16.2 | 10.8 | 12.2 | 15.9 |
| 1억 5천~2억 5천 미만 | 12.6 | 13.0 | 12.2 | 12.6 | 12.7 |
| 2억 5천 이상 | 7.5 | 6.8 | 8.3 | 7.4 | 7.7 |
| 모르겠다 | 6.7 | 3.8 | 9.7 | 7.0 | 6.1 |
| 합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2. 퇴직(연)금 수령방식

**퇴직자는 일시금 수령, 재직자는 IRP활용 의사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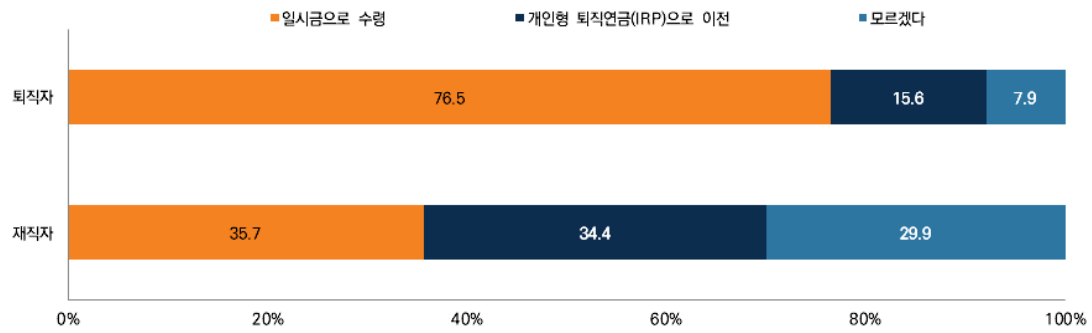
— 퇴직자의 76.5%는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였고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전한다는 비율은 15.6%임

— 재직자의 35.7%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응답하였고, IRP로 이전하겠다는 응답도 34.4%를 차지함.

• 재직자가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하겠다'고 응답한 비율(34.4%)는 퇴직자(15.6%)의 동일 응답의 2배 이상으로 재직자가 퇴직자보다 IRP활용 의사가 높음.

**[ 퇴직(연)금 수령방식 분포]**

(단위: %)




※ 퇴직자=1,044명, 재직자=967명

**[ 퇴직(연)금 수령방식 ]**

(단위: 명, %)

| | 퇴직여부 | | 보유 자산규모별 | | | |
|---|---|---|---|---|---|---|
| | 퇴직자 (969) | 재직자 (939) | 3억 원 미만 (489) | 3억~5억 (419) | 5억~10억 (612) | 10억 원 이상 (388) |
| 일시금으로 수령 | 76.5 | 35.7 | 58.5 | 58.9 | 54.4 | 54.1 |
|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 | 15.6 | 34.4 | 16.4 | 24.8 | 28.1 | 30.4 |
| 모르겠다 | 7.9 | 29.9 | 25.2 | 16.2 | 17.5 | 15.5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3. 퇴직(연)금 일시금 사용계획

**퇴직(연)금 일시금은 생활비로 주로 사용**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저축해두고 생활비로 인출해 나눠쓴다'고 응답한 비율(42.6%)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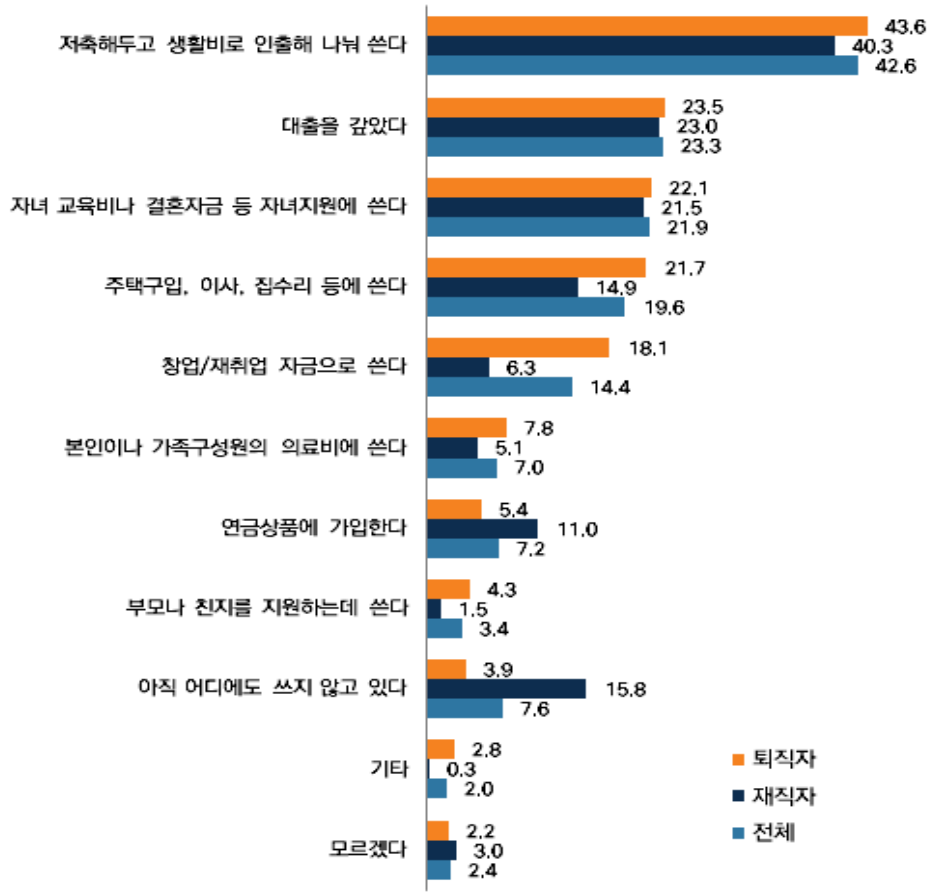
• 저축해두고 생활비로 인출해 나눠쓴다 : 퇴직자 43.6%, 재직자 40.3%

— 대출을 갚거나 자녀 교육, 결혼자금 지원 등 목돈 지출에 쓰는 경우도 많음.

• 대출상환(23.3%), 자녀 교육 및 결혼자금 지원(21.9%), 주택관련(19.6%)

**[ 일시금으로 수령한(할) 퇴직(연)금 활용처 ]**

(단위: %, 복수응답)




※ 퇴직자=741명, 재직자=335명

## 4. IRP 사용계획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할 경우 주로 연금형태로 활용**

—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한 퇴직자의 84.7%, 재직자의 80.5%가 이를 연금으로 활용.

- 퇴직자: 현재 연금으로 쓰는 비율 60.9%,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계획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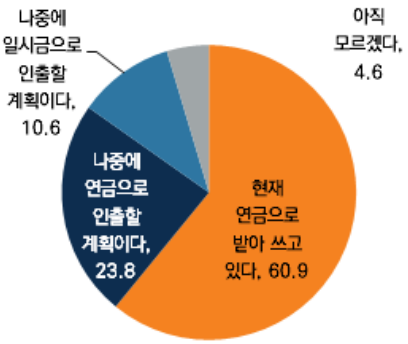
— IRP에서 나중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생활비로 쓰겠다'(33.9%)는 응답보다 목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많음.

- 생활비(33.9%) 〈 자녀지원(17.9%) + 대출상환(17.9%) + 창업/재취업자금(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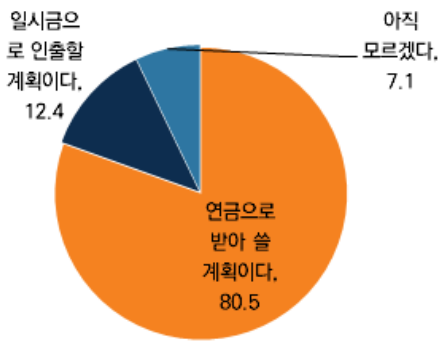
**[ IRP로 수령한 퇴직(연)금 사용 계획 ]**

(단위: %)

〈 퇴직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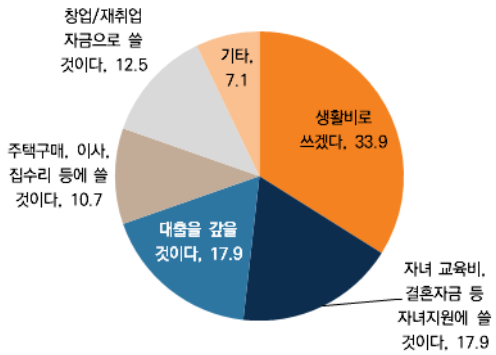



〈 재직자 〉




※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한 퇴직자=151명, 재직자=323명

**[ IRP로 퇴직(연)금 수령 후 일시금으로 인출 후 사용계획 ]**




※ IRP로 퇴직(연)금을 이전하여 나중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계획인 56명(퇴직자 16명, 재직자40명)

## 5. IRP 세제혜택 인지여부와 수령방식 선택

**IRP의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이 IRP 활용의 걸림돌**

—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한 5명 중 4명(77.2%)은 'IRP에서 바로 연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덜 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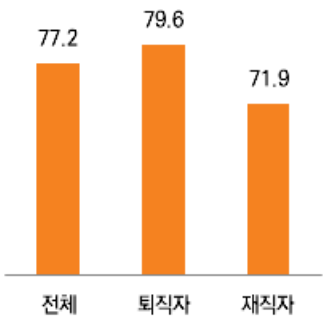
• 퇴직여부 별 : 퇴직자의 79.6%, 재직자의 71.9%가 IRP에서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모름.

—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은 퇴직자의 47.1%, 일시금으로 수령할 재직자의 43.9%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IRP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의향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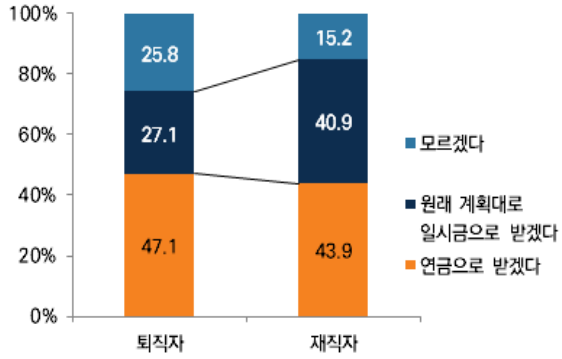
**[ 세제혜택 인식여부와 이에 따른 연금수령 의사 ]**

(단위: %)

〈IRP의 세제혜택을 인식하지 못한 비율〉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의향〉




**[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의향 ]**

| | 연령대 | | 보유 자산규모별 | | | |
|---|---|---|---|---|---|---|
| | 50대 (612) | 60대 (464) | 3억 원 미만 (286) | 3억~5억 미만 (247) | 5억~10억 미만 (333) | 10억 원 이상 (210) |
| 연금으로 받겠다 | 45.9 | 46.3 | 42.3 | 47.0 | 46.2 | 50.0 |
| 원래 계획대로 일시금으로 받겠다 | 33.5 | 28.7 | 33.2 | 33.2 | 31.5 | 26.7 |
| 모르겠다 | 20.6 | 25.0 | 24.5 | 19.8 | 22.2 | 23.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자=741명,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예정인 재직자=335명

## 6. IRP에서의 연금활용 이유

**정기적 소득에 대한 니즈가 IRP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는 주요 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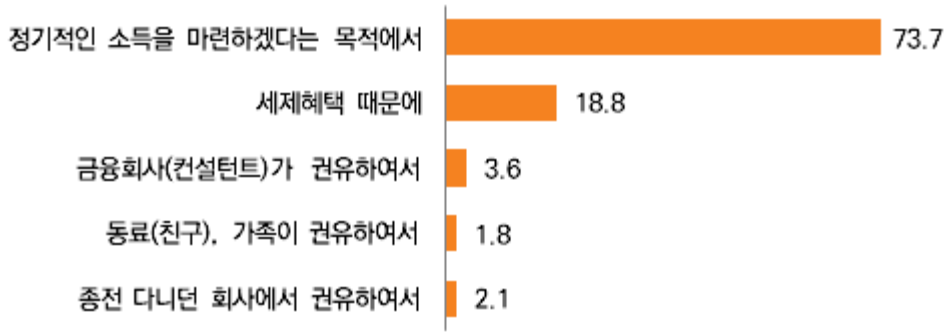
— IRP를 연금 형태로 활용하려는 이유는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자' 함(73.7%)이 가장 크고, 다음이 '세제혜택 때문'(18.8%) 임.

— IRP 세제혜택이 연금형태의 활용을 유인하는 효과는 퇴직자보다 재직자에게 두드러짐.

- 세제혜택으로 인한 연금수령 선택: 퇴직자 14.1% vs. 재직자 21.2%

**[ IRP로 퇴직(연)금 수령 후 연금으로 인출해 쓰는 이유 ]**

(단위: %)




**[ IRP로 퇴직(연)금 수령 후 연금으로 인출해 쓰는 이유 ]**

| | 퇴직여부 | | 연령대 | |
|---|---|---|---|---|
| | 퇴직자 (128) | 재직자 (260) | 50대 (257) | 60대 (131) |
| 정기적인 소득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에서 | 77.3 | 71.9 | 70.8 | 79.4 |
| 세제혜택 때문에 | 14.1 | 21.2 | 20.6 | 15.3 |
| 금융회사(컨설턴트)가 권유하여서 | 3.1 | 3.8 | 5.1 | 0.8 |
| 동료(친구), 가족이 권유하여서 | 3.1 | 1.2 | 1.9 | 3.1 |
| 종전 다니던 회사에서 권유하여서 | 2.3 | 1.9 | 1.6 | 1.5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후 연금으로 활용하는 퇴직자=128명, 활용할 계획인 재직자=388명

## 7. 퇴직(연)금 중간정산

**5060의 3명 중 1명은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인출하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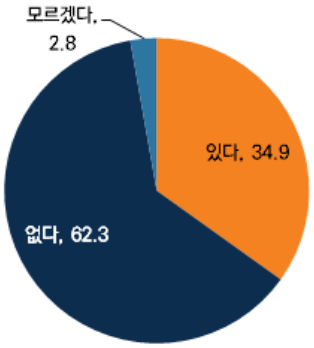
— 퇴직자의 34.9%, 재직자의 31.3%가 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인출함.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퇴직자의 53%가 1억원 이하의 퇴직금을 수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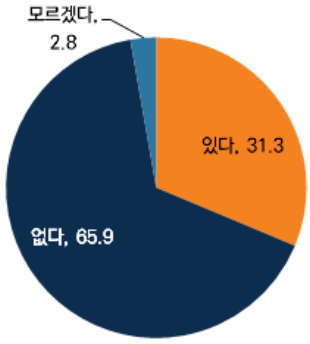
**[ 퇴직(연)금 중간정산 경험 ]**

(단위: %)

〈 퇴직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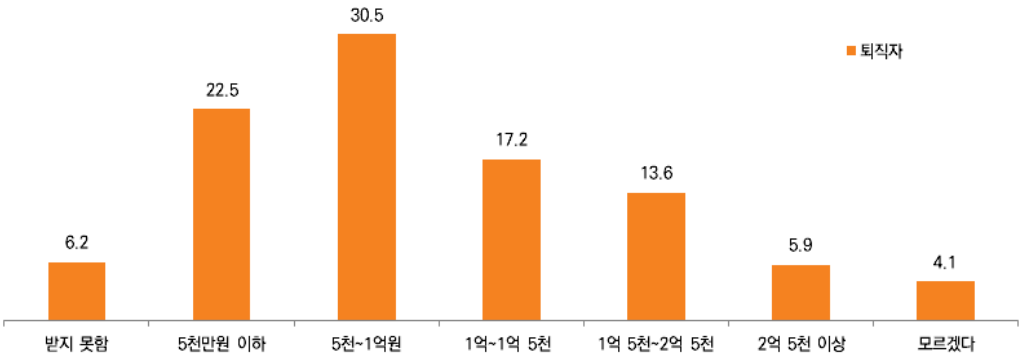



〈 재직자 〉




※ 퇴직자 969명, 재직자 939명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퇴직자의 퇴직(연)금 수령액 분포 ]**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퇴직자 338명